

인천공항 환승 여행객 "지역관광 볼거리 없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는 환승 여행객들이 인천 관광을 외면해 이들 환승 여행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열린우리당 유필우(남구 갑) 의원에게 제출한 '개항 이후 환승투어 현황'에 따르면, 공사측이 지난 2004년 11월부터 환승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지난 7월말까지 인천지역을 관광한 환승투어 이용객은 700명으로 전체 이용객(6천729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환승투어 참가자 가운데 인천 관광에 나선 이용객은 시행 첫 해에는 한달 평균 48명에 달하다가 지난해 35명에 이어 올해에는 26명 수준에 그치는 등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환승투어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에는 인천보다 3배 많은 1천870명이 서울에서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나 환승투어 이용객 상당수가 가까운 인천보다는 볼거리가 많은 서울쪽을 많이 선택했다.

게다가 환승투어 이용객중 3천5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공항 주변 사찰 관람이나 크루즈 여행에만 참가해 인천시내 관광보다는 공항 주변 관광에만 머물렀다.

이처럼 인천 관광 환승투어 이용객이 적었던 것은 이들에게 흥미를 끄는 볼거리가 많지 않은데다 그나마 관광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승 여행객들에게 대기 소요 시간대별로 인천시내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투어코스를 개발해 폭 넓은 관광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인천공항의 환승 수요를 높이고 환승여행객 인천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인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의 정책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환승투어는 공사측이 환승여행객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 관광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관광프로그램으로 동서여행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환승투어를 활성화하고 투어프로그램 이용객의 인천 관광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숙박과 관광, 쇼핑이 어우러진 단기 코스의 패키지 투어상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인천시나 정부기관의 협조와 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6-09-06 21:31:58